

산도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20

■ 사순절 둘째 주일/2014년 3월 16일

'산도'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호흡 기도”

사순절기 아침기도회에서는 40분간 호흡기도를 하고 있다. 호흡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는가이다.

우선 기본 호흡으로 10분간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호흡을 한다. 기본 호흡을 잘 해야, 잡생각 없이, 다음의 주제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첫번째 기도의 주제는 '내 아버지'이며, 10분간 기도한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의 기도이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뜻이 일치할 때에만 아버지와 아들이다. 뜻이 다른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적 유사성만 있을 뿐, 남남이나 다름없다. 아버지의 뜻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이것이 자기의 뜻이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이며, 이것이 호흡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두번째 주제는 '내 생명'(5분)이다.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즉 이기심과 자기정당화에 찌든 말과 생각을 남김없이 털어내고, 성령, 곧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기도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전혀 필요성을 느낄 수 없으니, 기도가 될 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된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된다.

세번째 주제는 '내 소원'(5분)인데, 이는 온 세상의 괴로움을 시켜놓고 악취나는 공기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모두 들이마시

고, 내 심장에서 깨끗이 정화하여, 다시 내 쉴 때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로 형상화된 생명의 숨결이 되어, 시들고 죽어가는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하면 기쁨이 되는 기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불쾌한 기도는 없다. 요즘처럼 미세먼지만 떴다 해도 불안해하는 시대에, 그보다 더 끔찍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것을 내 심장에서 정화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괴로운 일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사랑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목숨보다 중한 생명을 누리는 기도이다. 적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 외에는 정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다른 교우에게 잘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만 해도, 이 기도는 당신과 상관있는 기도가 된 것이다.

네번째 주제의 기도인 '내 사랑'(10분)은, 세 번째 주제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되, 내가 속한 가족모임의 성원을 한 사람씩 떠올리며, 그의 괴로움을 정화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된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흡기도의 주제를 따라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서, 거울을 한 번 들여다 보라. 당신은 거울 속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낯선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것

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꽤 몰두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귀고, 먹고 먹이며,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힘써 실천하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들에게 여러분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부분의 교우들과 일

대일 만남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가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복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복병과 매일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음 먹은 것과는 별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몸뚱이, 곧 육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우들에게 잘해주며 한 주간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여러분의 육체는 여간해서는 꿈쩍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육체의 욕구와 그가 뜻하는 바가 제법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육체를 자기 뜻대로 잘 움직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늘 낭독한 로마서 7장을 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기서 성공은 부와 권력,

명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성공은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뛰어난 시간관리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입니다. 물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격언이 아니라 망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두 개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루를 15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식으로, 시간을 구조화해서 다룹니다. 모든 일을 15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은 15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식사? 15개의 영단어 암기? 목욕? 목욕은 30분 걸린다고요? 이 사람들은 목욕이 30분 걸리면, 30분이 라고 하지 않고, 15분 곱하기 2로 계산합니다. 회의를 해도 15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기에 곱하기 2나, 3과 같은 식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15분 단위로 구성된 시간의 장 위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나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육체는 이와 같이 15분 단위로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을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하 바를 따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결정력이나 행동력이 중요한 성공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욕구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이 인간을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법칙처럼 제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서 뒹굴면서 먹고 자고 노는 것에 육체의 욕구가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육체의 욕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극단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육체의 욕구가 다 같은 것이라 말하지만, 저 카스트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탁



예레미야 애가 3:55 - 66

로마서 7:14 - 25

요한복음서 13:16 - 30



월한 고등 인간이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들은 별레만도 못한 하등의 인간들이라며 정색을 할 것입니다.

당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성공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들은 또한 많지 않습니다. 몇 대를 거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맥'입니다. 인맥은 자기 대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큰 자산이지만, 몇 대를 거쳐서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자산입니다. '시간관리'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인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인맥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과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녀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결혼도 수준이 맞아야 하고, 경제적 권력적 시너지가 상승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수한 영재들을 자녀로 낳아, 돈과 권력, 명예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화목한 가정' (?) 이 사람들은 이런 유지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수한 형제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어야 가족이 발전하고, 탄탄한 경쟁적 동맹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무한생존경쟁의 사막이라고 규정하는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개체로서의 나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무리한 방식이 아니라, 종족번식을 통해서 자기의 씨를 유지하는 합리적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어느 하나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카스트의 상층부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그것을 영속시켜 줄 자기 가족이 곧 종교입니다. 이 안에는 공동체도 있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있고, 살만한 의미와 가치도 있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닮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부와 권력, 명예를 지속시켜 줄 영재적인 자녀들의 탄생은 곧 자기의 부활생명의 탄생입니다. 돈과 권력은 그 자체로 아주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걸맞는 공

동체를 추구하며, 그 안에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매일 일관되게 다스리도록 하는 원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돈과 권력, 명예의 맛을 본 왕들이나 권력자들 치고 그 육체의 욕구에 반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택한 종교가 기독교건, 불교건 어떤 종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나라들처럼 왕을 원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사무엘기는 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의 욕구를 추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낭독한 애가서를 기록한 예언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는 두 가지 신 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신과 돈 신 너머에 있는 신,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돈 신이 아니라 돈 신 너머에 있는 신을 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신을 택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두 신은 결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로 구분될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신은 말로 구분할 수 있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돈 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이 육체를 움직여보지 않으면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가교회의 모든 교육과 집회에 잘 참여하면서도 돈을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돈 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다니는 일이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택해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가교회도 그런 식으로 없는 길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쉽게 온 것이라 고만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즐기차게 한 가지 계명에 집중했고,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두 신은 결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로 구분될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신은 말로 구분할 수 있는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돈 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이 육체를 움직여보지 않으면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아는 한 이 계명은 돈 신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면, ‘네 이웃’과 ‘네 몸’의 순서를 바꾸어도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몸을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럼 내 몸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나?’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두 단어의 순서를 바꾼 문장을 보았을 때에 말이 이상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원상복구 시켰을 때의 느낌도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만 좋게 들리고, 편하게 들리고, 그 반대는 이상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씌여서 헛것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정말 치절할 정도로 애절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에 거슬리는 문제에 부딪치면 바로 걱정, 두려움, 공포, 분노 같은 정서가 나타나서 흑기사 노릇을 하고, 그 밖에 다른 생각이나 의지 등은 맥없이 뒤로 물러나고 맙니다. 이 정서들은 육체가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호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여겨도, 그 말씀으로 육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의 뜻은 저 정서들의 힘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사랑의 금식을 하자’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는 바로 허기증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산 경력이 거의 없는 육체는, 기아로 허덕이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까지 상상하게 해서 공포와 분노까지 느끼

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라도 먹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교우가 ‘사랑의 금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바로 내 몸의 느낌이 괴롭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느낌이 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교우가 금식이 아니라 실제로 굶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궁핍한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은, 틀림없이 사랑의 금식을 통해서 모았을 것입니다. 형제 교회의 교우들이 굶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가 굶는 느낌이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 금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헌금을 모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태생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끔 생겨먹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법, 곧 돈과 권력의 법을 따를 때에 즐거워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받지 않고, 육체의 법도 따르지 않겠다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육체의 법이 K.O.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되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없이는 여러분의 육체의 욕구를 여러분의 뜻대로 다스릴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육체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연대하면서 그 욕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육체는 이미 혼자가 아니고, 다른 인간의 육

체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육체의 욕구로 채워진 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개성을 열심히 떠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다들 돈 따라, 권력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유행 따라 몰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기 몸을 다스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교회로 산다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그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진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이런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극적인 반전이고, 이게 인생역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사순절기 중에 예가교회의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기 중, 예가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도전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자기 몸처럼 좋아하고, 잘해주는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구, 곧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귀고, 먹고 먹이는 일도 몸뚱이의 욕구들로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판단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앙갚음하는 일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소애 말이나 글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만큼,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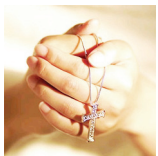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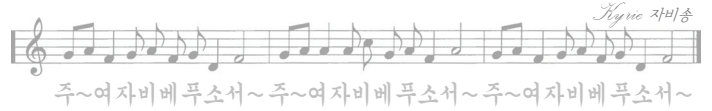
즐거운 이한재: 매일 말씀을 읽고, 가족들께 문안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새벽기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가족모임 공지를 잘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갖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일대일 만남 짝을 그리워하며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빌립님께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여름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두 명의 가족과 전화만남을 갖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유유 박서연: 큰열매님께 안부 문자를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신나님께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아침만남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작은불꽃 김강진: 새벽 집회 후에 집회 느낌나누기를 하

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섬김 준비를 잘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신나님의 섬김 준비를 돕고 감사선물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가족모임에 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큰열매 김영미: 학습퀴즈를 즐겁게 준비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가족들과 새출발의 기쁨을 나누는 전화와 만남을 갖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섬기는 독립군님을 생각하며 카드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안부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새롭님에게 모닝콜을 하고, 가족 3명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가족카페에 3회 이상 글을 올리겠습니다.
 새롭 류정희: 계획대로 섬김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가족모임 사진을 미루지 않고 카페에 올리

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가족모임 장소 준비를 돕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카톡으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울 최재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홉기도와 금식에 힘쓰겠습니다.
 조이 김현정: 가족모임에 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모임 식사준비를 돕고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가족모임에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갖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모임 후 정리를 돕겠습니다.
 보물 서보람: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기쁨과 감사로 섬김을 준비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가족을 만날 때마다 허깅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가족을 생각하며 섬김과 격려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수정한 사진을 가족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뿌리님과 사랑과 격려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27편 1-6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이 주실 것이니,
그 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첫 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우리
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
라는 왕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 백성의 생
명을 살리는 나라임을, 몸소 가르쳐 주셨
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
을 살게 하소서. 오늘이 저 영광스러운 나
라를 향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즐거이 따
르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마가복음서 사도행전
11-12 / 13-14 / 15-16
1-2 / 3-4 / 5-6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
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27편 7-14절
소리 내어 천천히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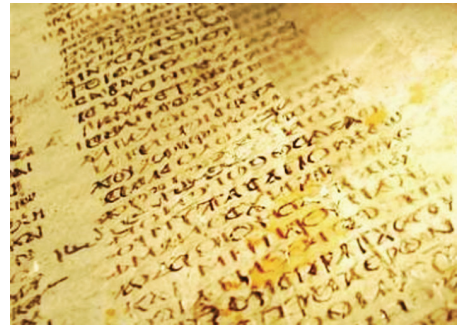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9 회



개관(6)

12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 “[1]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2]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행18:1-2)

바울은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에서는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간 까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은 없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다. 본도(pontus)는 소아시아의 북단에 있고, 흑해에 맞닿아 있는 지형이 험한 지역인데, 본래 독립국이였다가, 주전 66년에 로마제국의 속령이 된 땅이다. 그런데, 그는 로마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도행전은 그들 부부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령이 내려져서, 고린도로 피신해 왔다가 바울을 만났다고 전한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다.(행18:5) 실라와 디모데는 베뢰아에서 바울과 헤어졌다. 그들은 베뢰아에 머물러 있다 고린도로 온 것일까? 아니면, 베뢰아가 속한 마케도니아 지방의 다

른 교회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들렀다가 온 것일까? 사도행전은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테네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의 증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사도행전 식으로 본다면, 바울은 베뢰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야 맞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파송된 것이다.

확실한 것은, 베뢰아가 되었던 아테네가 되었던 바울이 디모데와 잠시 헤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천막을 지으며 선교활동을 했던 바울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 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고작해야 3주 정도 밖에 머물지 않은 교회였다. 마케도니아의 다른 교회들도 바울의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테네로 넘어오면서,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상황을 걱정

했을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었기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도 전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바울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기쁜 소식까지 전해준 것이다. 이 기쁜 소식에는 그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서고 있다는 소식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자금을 모아 디모데편에 부친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이상 천막짓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울은 선교자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의 지원없이도 무려 1년 6개월이나 활동할 수 있었다. 마케도니아에서 상당히 큰 자금이 바울에게로 온 것이다. 이 많은 자금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일까?

가장 유력한 인물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이다. 루디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요즘 식으로 치면, 제일모직의 사장 혹은 코코샤넬이나 크리스찬디오르 같은 명품 패션디자이너라고 보면 된다. 그녀는 왕족이나 귀족 같은 부유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옷감을 거래했는데, 옷감 장수라고 해서 동대문 원단장수 정도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당시에는 옷감만 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옷을 디자인하여 팔았기 때문에, 루디아는 요즘 식으로는 큰 패션회사를 갖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좋다. 루디



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마케도니아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빌립보가 선교거점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동지였을 것이고, 가장 큰 후원자였을 것이다. 2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의 선교활동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특히 루디아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활동할 때에도, 선교자금은 빌립보 교회에서 부담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다음 활동을 위한 선교자금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있었던 바울의 선교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이고, 그 중심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고려해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을 위한 선교자금이 함께 도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언급을 고려한 추론이지, 사도 행전의 직접적인 주장은 아니다.

당신은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두루 다니는 선교여행은 신선이 구름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대충 읽으면, 바울이 마치 신선처럼 돌아다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사는 이야기이고, 내가 속한 교회의 이야기라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바울이 선교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동했는지를 결코 그렇게 동화나 만화처럼 가볍게 읽어낼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입장에서 바울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30명 정도라고 해보자. 당신은 거기서 3주 정도 머물다가 사정이 있어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떠난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당신과 함께 다니던 홍길동을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당신은 홍길동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빈 손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인가? 당신이 돈 한푼 주지 않고 그를 보내면, 보내지는 것인가? 울릉도에서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가려면, 배도 타야하고,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데, 헤엄치고, 굶으면서 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가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여비를 마련해서 가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매년 그렇게 현지에서 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바울도 때로는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선교활동을 한 적이 있다. 적어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바울은 그렇게 일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활동은 아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 일행이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통장에 송금하면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도시 사이에는 선교자금을 나르는 연락책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실라 혹은 디모데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 그는 바울의 조력자요,

제2의 바울과 같은 존재였다. 아마도,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아테네로 들어간 바울이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에, 바울은 그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로 먼저 보냈을 것이고, 거기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과 선교협의를 했을 것이다.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고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자금과 사람을 지원받아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것이다.

성경을 신화로 보면 모든 일이 자동으로 거저 되는 줄로 안다. 성경을 신화로 읽으면, 그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모두 신선놀음이나 마술적인 일이 되고 만다. 우리처럼 피와 살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았는가를 읽어낼 길이 없어진다.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모두 개척을 하지는 않는다. 개척을 하지 않는 까닭은 개척이 두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개척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개척을 쉽게 보지 않는다. 쉽게 보고 뛰어난 사람들도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깨닫게 된다.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 바울이 쉽게 선교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바울은 목숨을 걸고 교회개척활동을 했다. 그가 겪은 어려움에 관해서는 그가 직접 보고한 일도 자주 있다. 그는 그를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술하게 매도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땀 흘려 일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밥 먹듯이 하면서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오투기처럼 일어섰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목사나 사제들이 자기 손으로 일



해서 돈을 벌지 않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와 사도행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파송된 지점이다. 그곳은 베뢰아일까? 아니면 아테네일까? 이 둘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울의 활동을 아주 현실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베뢰아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전령을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베뢰아에서 바울은 그를 붙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아테네로 왔다. 따라서, 그가 직접 다시 베뢰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꽤 성공적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따라서, 아테네에는 바울의 전령이 되어 줄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령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베뢰아에 있는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 전령은 메시지만 전해주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왔을까? 전령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디모데와 동행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쩌면, 전령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시 아테네로 돌아오는 안내자의 역할도 맡았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디모데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현지에서 직접 선교활동을 한다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밖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긴밀하게 선교협력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도 전령편에 부쳤을 것이다. 혹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갖는 위상이 상당히 컸다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교적 공조체제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한 추론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

립보 교회로 보낼 때에 전령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알려진 선교의 베테랑이다.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이 아직 아들이라 부르는 정도이고, 선교 경력으로 쳐도 신참이다.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로 가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신참인 디모데를 혼자 보내서 일을 진행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돕는 사람들도 함께 붙였을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서 보내진 전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한두 사람 이상의 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은 디모데의 주요한 선교활동의 거점이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일 이후로, 디모데는 마케도니아 선교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가야 지방의 선교거점은 어디였을까? 아테네는 바울이 잠시 스쳐 지나간 느낌이다. 아테네에서 디모데에게 전령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바울은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들어갔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마도 고린도가 주요한 선교의 거점이 되었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지방은 아가야 지방에 비하면 바울이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많았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의 존재가 노출된 상황이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아가야 지방이 마케도니아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교 거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 자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마케도니아 선교 담당자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장소는 아테네보다는 고린도가 유력하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에게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처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머물며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울은 주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그러나, 바울의 회당 활동은 벽에 부딪치고 만다.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활동의 거점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인 '디디오 유스도'의 집으로 삼고 활동하게 되는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아닌, 디디오 유스도의 집을 선교 거점으로 택한 것은, 아무래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회당 옆에 붙어 있는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회당을 찾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했던 것이다. 그 후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고린도교회는 왕성해져 갔던 것이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시위가 있기 전까지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다가, 시리아로 넘어갔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매우 활발한



활동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선교 전략가이기도 하다. 그는 디모데를 전략적으로 할렐시켰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활동할 수 없을 때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으며, 고린도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나자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디오 유스도의 집을 선교 거점으로 삼고 회당선교를 지속하기도 했다. 그가 아테네의 의회인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웅변가이며, 지혜자인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바울은 말을 할 줄 못해서, 언변이 부족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에는 믿음의 언어로만 말을 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뛰어난 웅변가요 달변가였다. 이방인들은 그를 헤르메스라고까지 부르지 않았던가?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메신저인 헤르메스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였다면, 언변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바울은 뛰어난 선교전략가이다. 그는 교회 밖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에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십분 활용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가 없었다. 교회는 오직 사랑을 믿고, 사랑을 행함으로써만 세워지는 공동체이다. 바울은 교회로 들어오면, 믿음의 말, '사랑하자'는 말 밖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교우들을 향해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쉴 새 없이 반복하여 가르쳤을 것이다.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고급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고 명료했다. 물론, 로마서

와 같은 고급수준의 논문을 쓸 때도 있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바울은 현학적인 말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는 인물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 삼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에 비해, 그들이 배운 것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는 실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점수로 치면 과락에 해당하는 낙제점이었던 것이다. 교회는 말잔치 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그리고 유일하고도 하나뿐인 계명을 자기 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머리가 아니라 그의 몸을 통해서 구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만 교회이다. 이 점에서 교회는 당시에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의 선교를 위해서는 때로는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매우 지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세기 이후에 등장한 교부 변증가들은 바울의 전략을 계승하여, 교회 밖을 향해 교회를 변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얼마까지 않아서 교회 밖을 향한 변증의 신학이 교회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는 마치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에서 연설한 그 연설문을 가지고 와서, 교회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다. 교회 밖에서는 헤르메스적인 수사학을 구사했던 그 대단한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랑하라'는 오직 하나의 계명만

을 즐기치게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헤르메스라 불리었던 바울도,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되게 어리석은 말만 즐기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울이 교회안에서 즐기치게 가르쳤던 것이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를 헤르메스적인 수사들이 차고 들어온 것이다. 신학적인 언어가 신앙적인 언어를 대체한 것이다. 교리가 믿음을 대체하고, 말이 삶을 대체한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전략을 거꾸로 이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이긴 꼴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뜨렸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고 말았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성실 가족

찬미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경통독반과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이 즐겁다, 하루가 짝 찰스 낀다, 편집부 회식으로 모였는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좋다, 카라님과 여의도 산책하며 다가오는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점심 금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시편을 읽으며 주기도에 따른 기도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메뉴개편에 따른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주간이었고 판매호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벽기도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숨을 내쉴 때 온 몸의 숨을 남김 없이 내뿔노라면 숨이 끊어지는 느낌이다, 내 육체의 욕구를 끊어내고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새벽기도가 참 좋다, 인도자님과 일대일 만남을 했는데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교우를 좋아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르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달빛님 친정집을 방문하여 믿음의 사귀를 갖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드림 가족

드림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드림가족으로 성찬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며 수고하는 기쁨을 누렸다, 가족들의 조화가 잘 이뤄지고 모두 참여해서 좋았고 목포에서 올라온 어울님께 감사하다,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목은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어 좋다, 보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카톡방에서 나눈 이야기로 큰 힘을 얻었으며, 처음 참여한 새벽기도회가 새로웠다, 목포에서 올라와 성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족 모두 진정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았고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좋았다, 신년집회강의를 수시로 들으며 몸의 욕구대신 나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좋다, 사순절 성경통독을 참여해 성경을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읽으니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진다, 용산시찰다과를 준비해서 대접했는데 목사님들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로서의 삶을 완전히 사셨다, 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기도의 내용대로 기도에 힘쓰겠다, 식탁가족의 푸른님께 문자를 하겠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사망의 길로 갔다, 식탁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소식 가족

즐거움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내 삶의 현 위치를 생각하였다, 아침기도와 워크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병원 전공의 파업으로 한가한 월요일을 보내면서 시간을 내어 빌립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소식가족 첫 번째 번개모임을 가졌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를 떠니 참 좋았다, 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던 가족스토리와 일년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좋은 스토리를 만들었으니 그 스토리로 행복하고 기쁜 일년을 살겠다, 사순절금식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새 주기를 시작하며 설레지만 안정된 가족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좋다, 나쁜 말과 행동으로 나쁘게 사는 삶을 끊기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직업 상담을 받는다, 요셉이 와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 해 주고 여유 있게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어 사랑하는 능력 밖에 없다, 나도 지금 이곳, 여기에 있는 사랑하기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겠다, 십자가의 길은 심리적 괴로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만, 제자들의 화목을 당부하셨다,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화목을 귀히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맑은 가족

독립군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우리가족 스토리를 읽으며 즐겁게 가족들과 통화하고, 새 1주기 계획서와 안전을 만들었다, 대기명당 요셉의 자모로 아이들 워십

평가회에 참여하여 스케줄 작성과 실행하며 느낀 점을 들으며 나도 실행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동안 미루었던 과제를 하며 지내고 있다. 아이들 뒷바라지로 늘 수고하는 늘빛님에게 고맙다. 전체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 스트레칭과 호흡기도를 함께 하며 좋았다.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스토리로 올 한해 멋지게 살겠다. 중국에서 허리통증과 추위 때문에 일을 많이 보지 못했다. 가게 인테리어 구상 중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사랑하는 삶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며 시편 기도문을 적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혼자라도 가야 한다. 식탁가족 민혁에게 입학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 연이에게 선물하겠다. 매일 아침기도 후 2명에게 문자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 가족

신나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나누는 시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귄이 많아지고 일에 진척이 생겨 좋았다. 새벽기도를 하니 상쾌하고 맑아지는 느낌에 에너지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나도 호흡기도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좋았다. 카톡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수시로 나누다 보니, 일상의 관심이 우리 화음가족으로 집중되어 참 좋다. 시편 기도문을 적어서 보니 좋다. 가족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긴장되지만 가족들을 믿고 내가 즐겁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토요일 호흡기도 멤버들이 있어 한 시간 호흡기도를 잘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다. 성경통독반에 참석해서 빠르게 성경 읽기를 해 보았는데 두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니 좋았다. 대기명당 겨울웍샵 평가회에서 부쩍 자라준 아이들 하나 하나에게 고맙고, 아이들과 부모들을 이끌어준 목사님께 감사했다. 가족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즐겁다.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느끼며 지냈는데 가족들과 함께함에 힘내어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의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이를 섬기는 데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식탁가족을 위해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믿고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가기로 했고 그렇게 가고 있어 감사하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 가족

진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죄의 고백문을 쓰니 나의 욕심

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대기명당 평가회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좋았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 허리가 무척 아팠지만 목사님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대기명당 회계정리하는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아모님의 도움을 받고 기분 좋게 하려 한다. 대기명당 평가회로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하나를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목사님과 서포터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고 모두에게 감사한다. 처음으로 사순절 금식에 참여했다. 배고파서 후각은 더 예민해지고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았다. 물맛이 달게 느껴지고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져 감사하다. 목사님 말씀에 따라 주기도문을 다시 보게 되었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기도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유다만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들도 다 배신자였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그러한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포도 가족

새롬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는 “새벽기도하며 더러운 몸이 정리되었다. 그 동안 함께 스토리, 캐릭터를 함께 만든 가족들이 고맙다. 대기명당 평가회에 참여하였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이 흥미롭고 참 재미있었다. 대기명당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목사님과 서포터즈에게 감사 드린다. 화음가족이 우리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어 청소하고 깨끗해진 집을 보니 즐거웠다. 카이조쿠에서 4명이 모여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목사님과 미팅을 가졌다. 매일 성장하며 한 가지씩 달라지는 현실이를 보며 양육일기를 쓰고 있다. 대기명당 평가회를 하며 우리 아이들이 통이 커지고, 당당해지고, 밝아지는 모습에 기쁘고 감사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에 대해 잘 배워 내 몸을 바꾸어 내자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익히고 있다. 새롬, 해님과의 일대일 만남으로 앞으로 포도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비전을 나누고 격려하고 사귄을 나누며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세상의 편에서 보면 교회는 바보들의 공동체라고 했다. 나는 바보가 되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사모하며 살 것이다. 배신한 제자들의 얘기가 내 얘기가 안되도록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초록님께 컴퓨터 본체를 드리겠다. 진주님께 안부 감사문자를 하겠다. 주일식탁가족에게 간식을 대접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삶

소식가족 즐거운 이한재



어김없이 출근길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댄다. 모두들 무표정한 표정들과 어제의 피로를 느끼게 하는 괴로운 얼굴들, 수면 부족을 잠시나마 보상 받으려는 듯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모두들 자신의 영역침범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긴장모드와, 전투모드로 돌입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아침 출근길, 그것도 대중교통을 통해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이다. 전쟁터로 출정하는 무사들의 모습일까?

나도 잠시 내 몸 가눌 곳을 찾아서 영역을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떨링.’ 2014년 3월 11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 도착. 작년부터 졸업했던 학교 친구들의 모임인 밴드에 매일 아침 친구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댓글을 달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소통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만날 약속도 잡고, 힘들 일 있으면 서로의 의견과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만원 지하철 안에서의 내 영역을 만들어 간다.

사실 작년 전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간 알고 지냈던 지인들과의 연락을 소홀히 했던 나였다. 101만 초청 기간에만 잠시 초청 리스트를 만들고, 초청통화만으로도 충분한 관계유지려니 생각했었다. 어느 정도의 밀착이 드러나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이러한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계가 충분한 소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썩을 수 밖에 없는 고인 물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나의 행복한 삶을 전하는 기회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

그러한 생각들이 들을 때쯤 연락 가능한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을 했고,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내 나이대의 친구들이 아이들 학교 교육문제로 내가 근무하는 직장근처로 하나 둘씩 이사를 해서 만날 기회가 많이 생겼다. 우선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갖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졌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었다. 처음 어색한 느낌을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의 가르침대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잠시나마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우선 많이 들어주고 경청을 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것을 믿자.’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행동들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연락을 하고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오고 있다.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매주 워크북 작성하면서 사랑을 전하며 파트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교회 밖 사람들과 관계유지와 개선에 힘을 쓰고 있고, 예배 예전문 낭독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따라 항상 전도에 힘쓰겠습니다’를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있다

올해 새로 소식 가족 안에서 연간 스토리의 전개 내용인 ‘섬 안에서 요정들끼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에 젖어 사는 요정들이 행복을 전하는 스토리를 짜면서 나도 나의 행복한 삶을 복음으로써 전하는 한 해를 사는 행복한 꿈을 꾸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기쁜 소식으로의 삶, 복음으로써의 삶을 살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몸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겠다. 색, 성, 향, 미, 촉, 영을 이루는 몸으로 한 해를 살기 원한다.

대기명당 여행기

2014년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14일의 일정으로 라오스, 베트남, 태국 배낭여행을 한 대기명당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행에는 청년부의 혜음 이규진님과 라온 이다은님이 인솔하여 대기명당 9명이 순조롭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3개국을 여행한 만큼 이동시간이 길어 지루함을 달래줄 게임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빵 게임'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교우 여러분도 학생들에게 물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 양동업

2월 19일

12시에 미니밴을 타고 빠이로 향했다. 나는 그럭저럭 갈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미나 더위 때문에 죽을 맛이였다고 하였다. 숙소 전부 에어컨이 없었지만, 숙소 옆에 그물침대도 있어서 그네도 타며 놀았다. 나중에 혼자 거기 누워보려 했는데 그물침대의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누가 보면 매우 창피한 모양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못 봐서 다행이었다.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길거리음식을 먹었다. 매우 매우 맛있었다. 양념돼지고기 꼬치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청난 맛이였다. 길거리에 태국인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았고 가끔 한국인도 보여 반가웠다. 숙소가 낮에는 더웠으나 밤이 되니 선선하고 좋았다. 그러나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선우와 나는 야밤에 소리를 지르며 찬물로 샤워를 하였다.

2월 22일

7시 도착예정이었으나 일찍 출발하여 3시쯤 루앙프라방 숙소로 도착하였다. 우리는 숙소 앞에서 노숙을 하였다. 새벽이라 추워서 옷을 여러 겹 껴입었다. 한국 노숙자들은 얼마나 추울까라는 생각을 했다. 옆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라오스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선우랑 지원이 음식이 주문되지 않았다. 선우가 밥을 먹지 못해 힘들어 보였다. 내가 애들한테 '빵 게임'이란 게임을 알려주었는데 꽤 머리를 쓰는 게임이다. 나는 어느 정도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서 계

속 이겼다. 체크인 시간이 되어 숙소로 들어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호랑 재현이랑 선우가 쳐들어오더니 연구해 온 필승법으로 나를 털어버리고 유유히 가버렸다. 황당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을 먹었는데 선우음식이 또 주문이 안되었다. 선우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다. 숙소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었다. 볶음밥이 질려서 새로운 메뉴인 그린커리를 시켰다. 내가 선우를 꼬셔서 선우도 그린커리를 같이 시켰다. 느끼하고 생각한 것과는 달라 먹기가 힘들었지만 나름 맛있었다. 선우도 맛있다고 웃으며 먹었지만 매우 힘들게 접시를 비웠다. 그리고 몽족 야시장을 구경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은 1000집을 할인해준다는 문구를 적어 놓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보였다. 한국인이 라오스에 많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시장을 한번 쪽 구경하니 매우 힘들었다. 마사지를 받을 마땅한 곳이 없어 숙소로 들어가 씻고 일찍 잤다. 정말 깊이 잠들었던 것 같다.

2월 24일

아침에 일어나 폰트래블에 가서 미니밴을 예약하고 툭툭이를 타고 블루라군으로 갔다. 가는 길이 매우 덜컹거리고 먼지가 엄청 많아서 도착했을 때 내 다리털이 하얀색이 되었다. 가보니 서양인이 겁나 많이 있었다. 웅덩이 같은 계곡에 다이빙하는 것이 주로 노는 것인데 밧줄을 잡고 타잔처럼 뛰어내릴 수도 있었고 나무 위에 올라가 다이빙할 수도 있었다. 물 깊이가 4미터 정도로 꽤 깊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많이 하니

까 익숙해지고 매우 재미있었다. 10미터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다. 진표가 처음으로 성공하고 나도 올라가서 뛰었다. 매우 무서웠지만 재미있었다. 선우도 뛰었는데 수영도 못 하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다. 멋있었다. 정우도 뛰었는데 시간을 무지하게 끌다가 겨우 뛰었다. 그리고 "아임 크레이지 나 파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요란하게 떨어져 다른 외국인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였다. 어떤 외국인은 정우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숙소로 돌아가야 할 때는 너무 재미있어서 좀 아쉬웠다.

요셉 홍진표

2월 22일 루앙프라방

새벽 4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인 11시 전까지 시간을 때웠다. 아침 식사 중에 재미로 초성게임을 했는데, 옆 테이블에서는 동업이형이 '빵 게임'이라는 머리 쓰는 게임을 시작했다. 규칙은 대충 이렇다. 우선 2인용 게임이며, 1, 2, 3번 테이블에 각각 3, 6, 9개의 빵이 있고 각 테이블에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빵을 가져갈 수 있다. 번갈아가며 가져가다가 둘 중 마지막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이 진다.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재현이와 함께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며 공식을 일반화한 결과 필승법을 구축했고, 재미가 없어졌다. 이 빵 게임 공부를 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계속 피곤했다. 왕시폭포에 가서 물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물이 상당



히 깊었는데 다이빙도 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바닥 돌이 날카로워 아팠다. 쪼리도 샀는데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흥정 없이 비싸게 사버렸다. 돌아와서 마사지를 받고 쉴 것을 기대했는데 야시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다리가 매우 아팠고 내가 찾고 있었던 체스판은 어디에서도 팔지 않았다. 재현이는 모자를 사겠다고 해서 온 야시장을 다 둘러보고 모자를 샀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만족스러워 하는 재현이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고백 류지호

2월 20일

어제 규진이 형과 놀다가 규진이형이 가고 잠이 들었는데 같은 방을 쓰는 진표형이 안 들어왔다. 우리 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예약한 다른 방에서 자자는 건 줄 알고 다른 방에서 잤다고 했다. 덕분에 2인용 침대에서 편하게 자서 행복했다. 그리고 집합시간 3분 전에 진표형이 돌아와 날 깨워서 허겁지겁 이빨만 닦고 어제 찐 짐을 들고 규진이 형 방으로 갔는데 유재현이 없었다. 애가 어리버리하기는 해도 이상한 사람을 따라갈 아이는 아니라서 썩크림이나 치덕치덕 바르고 있었다. 어디 가서 자고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여자애들이 1인용 방인데 침대가 3개인 곳으로 옮기면서 빈방이 된 8번 방에서 자고 있었다. 짐을 챙겨서 댐을 타는 곳인 아야 서비스에 가서 짐을 맡기고 다은이 누나가 어제 봤다는 식당으로 갔다. 돼지 볶음밥을 시키고 웨이크를 고르는데 망고 트쉐이크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다른 것을 먹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난번에 먹은 망고쥬스가 정말 맛있었기에, 그냥 망고요거트쉐이크를 시켰다. 지난번에 먹었던 맛이 나서 안도했고 맛있었다. 그리고 피씨방에서 기행문을 쓰는데 타자를 외우니까 쓰기가 편해서 뭔가 뿌듯했다. 옆을 봤는데 독수리 타법이라서 타자를 치는 것보다 화면에 있는 한글 자판을 누르는

것이 더 빠른 선우가 너무 웃기고 안쓰러웠다. 먼저 마사지를 받는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피치쿨러라는 음료수를 시켰는데, 복숭아 통조림하고 얼음하고 시럽을 같이 간 것이다. 복숭아 통조림 맛이 그대로 났다. 난 좀만 먹고 파일을 날려서 힘들게 쓰는 것 같은 동우에게 주었는데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좋았다.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제 그 신의 손 아저씨보다는 별로였지만 시원했다. 그리고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다. 주문은 했는데 시간은 없고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댐은 6시에 출발인데 음식은 5시 50분이 넘어서야 나왔다. 허겁지겁 먹고 아야 서비스 앞으로 갔는데 다행이 댐이 떠나지는 않았다. 짐을 싣고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또 아무도 먼저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또 댐 뒤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지옥을 체험하고 싶은 자 내 옆에 앉아라'고 말했는데, 진표형이 와서 앉았다. 나는 옆에 있는 짐에 기대서 좀 괜찮았는데, 진표형이 고개를 가누지 못해서 나랑 자꾸 부딪혔다. 댐을 한 6~7시간 타고 숙소에도 착했다.

2월 22일

숙소 체크인인 11시에 할 수 있어서 숙소 앞에서 노숙을 했다. 너무 졸려서 숙소 앞에 있는 나무책상에 엎드려서 30분 정도 잤는데 온몸이 쭈시고 너무 추웠다.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을 먹고 규진이형과 다은이 누나 없이 사원을 구경했다. 별로 멋있거나 웅장하거나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걸어 다녔다. 체크인 시간이 안되어서 강이 보이는 야외 카페에서 팀 별로 앉아서 음료수를 먹으면서 게임을 했다. 동엽이형이 알려준 빵 게임이 특히 재미있었다. 그러나 체크인을 하고 모여서 잠을 포기하고 빵 게임을 연구해서 다시 게임을 했다. 나도 이기고 재현이도 이겼는데 선우는 방법을 알아도 동엽이형을 이기지 못했다. 말은 동엽이형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냥 진 것이다. 웃겼다. 그리고 결국에 모두가 이 방법을 알아버리자 게임이 너

무 재미없어져서 아쉬웠다. 집합시간이 되어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엎드려서 잤다. 볶음밥을 먹고 툽툽이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했고 졸렸다. 게다가 엄청 멀어서 그냥 유턴해서 숙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데 팡시폭포를 가니 모든 피곤이 가시는 것 같았다. 물은 차거웠지만 같이 노니 재미있었다. 툽툽이를 타고 돌아와서 씻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가서 국수를 시켰다. 면보다 팍취가 더 많았다. 진짜 팍취맛 밖에 안 났다. 다은이누나가 하나 더 시키라고 했지만 그냥 먹었다. 그리고 같은 팀인 선우랑 지원이랑 야시장을 구경하다가 선우랑 닭꼬치를 하나씩 사먹었다. 지원이 팔찌를 사는데 선우가 가격 깎는 것을 엄청 잘해서 놀랐다.

명화 이정우

2월 16일

오늘은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머리띠가 없어져서 머리를 묶지 못했다.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이 맛있었다. 경유를 해서 중국을 들렀다 갔는데 중국 공항도 좋아서 구경을 했다. 비행기를 한번 더 타고 방콕공항으로 왔는데 너무 습했다. 그리고 택시줄도 길어서 좀 힘들었다. 숙소에서는 나와 선우가 제일 좋은 방을 썼다.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고추와 바나나 껌질을 먹어서 토했다. 오면서 찐 음료수와 과자를 사서 좋았다. 숙소로 와서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2월 17일

오늘은 아침을 먹으러 엄청나게 걸었다. 그런데 거기는 엄청 시끄러워서 좋지는 않았다.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엄청 빨랐다. 지하철을 타고 77번 버스를 타고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예매했다. 버스도 시골 느낌이 나서 좋았다. 버스에 약을 한 다음에는 시암스퀘어에 가서 구경을 했다. 구경을 하고 나서 스타벅스로 모이

기로 했는데 스타벅스가 3개나 있어서 모
이기가 힘들었다. 구경을 하고 숙소로 가서
진표형은 머리를 깎으러 갔다. 그 사이에 외
국인이 와서 우리들의 글씨를 모아갔다. 그
리고 버스에서 영화가 나와서 보고 잤다

2월18일

버스에서 깬 다음 숙소 찾으러 갔는데 계
획에는 도보로 10분이었는데 엄청 멀리 있
었다. 숙소는 엄청 좋아 보였다. 그런데 체
크인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짐을 두고 아침을
먹었다. 치앙마이에는 개가 엄청 많았다. 나
는 개를 무서워해서 들판에 정인이 옆에 있
었다. 아침을 먹고 체크인시간이 될 동안 수
영장에서 놀았다. 숙소로 들어와 보니까 저
번 숙소보다 좋았다. 빨래를 말리고 현지 음
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고 쉬다가 마사지를
받았지만 나는 좋지가 않았다. 당구대가 있
어서 포켓볼을 치고 놀았다.

다숨 이지원

2월 16일 일요일 서울-방콕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55분
에 교회를 출발했다. 그리고는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비몽사몽 상태로
움직여서 힘들고, 배고 엄청 고팠지만 문제
없이 공항으로 도착했다. 밥을 먹고 우리는
중국 동방 항공이라는 비행기를 탔다. 인터
넷으로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

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좋고, 준비된 것도 많
아서 좋았다. 비행기에서 한참 자다가 안 나
올 것 같았던 기내식이 나왔다. 기내식으로
는 닭고기 같은 것이 올려져 있는 밥과 샐러
드, 케이크 비슷한 것, 오렌지쥬스, 빵이 나
왔다. 밥이 보기와는 다르게 맛있었고, 오렌
지쥬스가 되게 맛있었는데 밥을 먹은지 얼
마 안 된 때라서 많이 못 먹은 것이 아쉽다.
얼마 뒤 우린 경유지인 상하이에 도착했다.
비가 와서인지 습하고, 찝찝했지만 내가 중
국 땅을 밟게 된 게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그리고는 지호, 정우, 동우, 정인, 선우와 같
이 공항 구경을 했고, 이 상하이 공항에는 하
젠다즈 아이스크림을 많이 판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우리가 공항 구경을 할 때, 나머
지 사람들은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정
말 편해 보였다. 그렇게 상하이에서 2시간
동안 쉬고 이번에는 방콕을 가는 비행기를
탔다. 나는 기내식을 먹으려고 다른 사람들
이 자는 동안 자지 않았고, 인터넷 소설을 봤
다. 그리고 기내식으로는 비벼먹으면 닭죽
맛이 나는 밥과 요플레, 빵 등이 나왔는데 아
침에 먹었던 기내식보다 더 맛있었다. 그렇
게 또 인터넷 소설을 보다가 방콕에 도착했
고, 비행기에서 내려보니 습하고, 더웠다. 방
콕 수완나품 공항은 베트남 공항과는 달리
되게 크고 좋았고, 우리나라 공항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린 1시간 동안이나 택
시를 기다려서 겨우 숙소로 이동했고, 가는

동안 끝말잇기를 하려다 베스킨라빈스를
했는데 지호가 일, 이, 삼을 하고, 다음 차례
인 선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삼계탕' 을 외
치는 바람에 모두가 빵 터졌다. 그렇게 재미
있게 숙소로 이동했는데 숙소는 공동화장
실을 써야 하는 곳이라서 정말 실망했다. 또
한 에어컨은 있는데 방에 구멍이 뚫려 있어
서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고, 선풍기는 이상
한 소리가 났다.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도미
토리 숙소에 묵게 되었다. 우린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약 3700
원 짜리 쌀국수를 먹었다. 선우 말로는 짬
국은 8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가격에 비
해서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지만 식당이
시원해서 좋았다. 그리고 밥을 거의 다 먹었
을 때에 정우가 태국 고추를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바나나 껍질 말린 걸 씹는데 그걸
먹고는 입 안에다 토를 하고는 그 토를 씹어
먹는 일이 발생했다. 정우는 아니라고 하지
만 그걸 본 사람이 여러 명이었고, 모두 즐
거워했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마친 후 나와
정인이는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층 사
위실 불이 이상해서 4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게 되었다. 근데 물이 엄청나게 차가웠고,
옷을 거는 곳도 없어서 서로 들어주면서 사
워를 하게 되었다. 겨우 샤워를 마치고는 했
지만 모이기로 했던 10시를 넘기게 되어 선
배들에게 미안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
루를 마쳤다.





온새미로 양동우

2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아웃을 하고 아점을 먹으러 갔다. 아점은 볶음밥과 파인애플 밀크셰이크를 먹었다. 맛이 좋았다. 아점을 먹고 피시방에 가서 일기를 예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잘못 만져서 4번을 날려먹었다.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드디어 타이핑을 끝내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냥 아팠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차를 타고 치앙콩으로 갔다. 평평한 도로는 꽤나 갈만했지만, 산길로 들어서니 멀미가 났다. 옆에 선우가 있었는데 같이 멀미가 나서 선우와 놀았다. "끝말잇기 할래? 끝말잇기 좋지. 기차, 차표, 표범 ... 재미없다. 369 할래? 그레 1, 2, 짹, 4, 5, 짹, ... 41, 짹, 42, 짹, 안 끝난다. 재미없다. 판 거하자. 31게임 할래? 123, 45, 678, ... 재미없다. 고속도로 나올 때까지 말하지 않기 하자 ... 고속도로 안 나올 것 같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놀다가 고속도로가 나왔고 멀미를 하지 않아 갔다.

2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카약킹을 하러 갔다. 특이기를 타고 갔는데 길이 이상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갔다. 가이드 아저씨는 한국말을 잘했다. 한국인이 많이 오긴 오나보다. 카약킹을 하기 전에 가이드가 있는 팀과 가이드 없는 팀과 나뉘었다. 나는 선우와 같은 팀이고 가이드가 있었다. 우린 그때는 몰랐다 가이드가 쓸모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꼴찌로 출발하였다. 가이드는 맨 뒤에 타서 아무것도 안 했다. 심심하면 슬리퍼로 노질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 두고 경치를 구경했다. 우린 1등을 하고 싶었다. 먼저 가이드가 없는 정우 동굽이형(동업이형의 새로운 별명)을 가볍게 재치

고 이어 진표형과 재현이를 재치고 지호와 정인이를 재치고 다은이누나를 제쳤다. 아마도 우리가 2등을 했을 것이다. 재미도 더럽게 없고 힘만 들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놀다가 출발했는데 망할 가이드가 출발을 하지 않는다. 또 꼴찌로 출발한다. '도 대체 왜 있는 거야! 이 아저씨.' 우리는 일등이 되기 위해 노를 저었다.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쪽 두번, 하나 둘, 3등이었다. 헉헉 숨 고르고 있는데 옆에 다은이 누나, 전쟁이다. 물을 뿌린다. 근데 다은이 누나 가이드가 너무 썰다. 져다. 분하다. 다시 간다. 덤뻤다. 근데 었어졌다. 져장 다시 간다. 노질을 해서 다은이누나를 막았다. 그러자 그 망할 가이드가 한 손으로 우리 배를 었어버렸다.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우리의 배는 육지로 가서 물을 빼었다. 다은이누나 배는 눈 앞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순식간에 꼴찌가 되었다. 아니지. 뒤에 두 팀이 남아 있었지. 뒤를 보자 진표형과 재현이가 보인다. "가자 선우야" 진표형과 재현이는 어리둥절하다 었어졌다. 와~ 하지만 선우가 진표형에게 잡혀 물을 먹었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물을 먹은 게 아니니까. 나와 선우는 60kg 아무 쓸모 없는 짐을 싣고 온 것이다. 나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그런데 뒤에 정우와 동굽이형이 오고 있었다. 에이, 좀만 기다렸다가 었어버릴걸 아쉬웠다. 똑똑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음료를 샀다. 미란다 사과맛을 먹고 싶었다. 그런데 앞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중 한 사람 진표형. 네 눈앞에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으, 숙소 계단을 올라가면서 진표형에게 짜증나는 말투로 말했다 "미란다 맛있음?" 그러자 진표형이 갑자기 '뽕뽕뽕' 이상한 소리를 내며 초록색 오물을 뺐었다. 롤 챔피언으로 비유하자면, 코그모의 E스킬을 뺐는 그런 것처럼.

미르 김정인

2월 18일 치앙마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5시 30분 정도에 갔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하는 순간 버스가 치앙마이에 도착하였다. 뭔가 아쉽기는 했지만 뭔가 기대되었다. 버스에서 내렸더니 새벽이라서 그런지 서늘하였다.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숙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카운터 근처에서 만난 고양이가 매우 순해서 쓰다듬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치즈태비와 검은 고양이었었는데 매우 귀여웠다.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먹었는데 햄버거는 짜고 사이다는 달았지만 그런대로 맛이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니 9시쯤 되었는데 마침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물이 약간 차갑고 찜찜했지만 재미있었다. 수영릴레이도 했는데 선우가 구멍이었다. 수영을 11시까지 하고 나니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쉬었다.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녔더니 오후 2시쯤 된 듯 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가정식 같이 나와서 색다르고 맛있었다. 그 후 숙소에서 쉬다가 지원이 언니와 같이 근처에 있는 슈퍼로 과자를 사러 갔는데 꽤 샀는데도 싸서 좋았다. 두 봉지 정도를 샀는데 90바트 정도 3000원 정도 나와서 좋았다. 그리고 신기하였다. 마사지도 받으러 갔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마사지 중 제일 시원하였고 특이한 자세도 많이 하였다. 기분 좋게 마사지를 받고 난 후 저녁으로 볶음밥과 망고주스를 먹었는데 볶음밥은 살짝 찢지만 내가 원하던 맛이 났고 망고주스도 마찬가지로 지여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 후 간식을 사서 숙소로 돌아와 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았다. 치앙마이에 개와 고양이가 많아서 좋고 숙소도 수영장도

있고 시원해서 좋은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무이네 느낌도 난다. 이곳에 2, 3일 쯤 머물고 싶다.

2월 20일 파이, 치앙콩

전날 늦게 잤더니 오늘 10시 40분에 일어났다. 일어나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빨리 준비를 마치고 인소를 보았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시내로 갔고 그곳에서 쌀국수를 먹었다. 쌀국수를 먹은 뒤 우리는 기행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러 갔다. 태국어가 써져 있는 키보드는 신기하였다. 19일 것을 한번 날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기행문을 올린 뒤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마사지는 굉장히 시원했고 만족스러웠다. 그 후 우리는 40분을 남겨두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나랑 지원이 언니는 파인애플 볶음밥을 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볶음밥은 나오지 않았고 출발시간인 6시에 나왔다. 우리는 재빨리 볶음밥을 먹어 치우고 차를 타는 곳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우리는 밴을 빌려서 늦게 가도 괜찮았다. 그렇게 우리는 밴에 탔고 새벽 1시쯤 '더 리버 하우스'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3명이라 3인실을 써야 했는데 방이 2인실에 비해 안 좋았다. 일단 제일 안 좋았던 것은 방안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샤워실이 괜찮아서 샤워는 잘 끝낼 수 있었다.

아람 류재현

2월 17일 월요일

아침 7시30분에 일어났다. 그리고 시간을 확인한 후 다시 잤다. 그리고 8시30분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였다. 그리고 9시 30분에 규진이형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였다. 그리고 짐을 맡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는데,

나는 구운 치킨과 밥을 먹었는데 별로였다. 그리고 기차랑 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다. 그리고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예약하였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백화점에 갔다. 백화점에서 나는 어떤 볶음밥을 먹었는데 태국고추가 많이 들어 있어서 엄청 매웠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백화점 구경을 하고 스타벅스 커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스타벅스 커피로 갔다.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그 백화점에는 3개가 있어서 서로가 엇갈렸다. 그래도 20분 뒤에 다 만났다. 그리고 마사지샵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숙소로 갔다. 근데 진표형이 머리를 자르러 가서 남은 사람들은 숙소에서 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였다. 그 외국인은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필기체를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여행되세요'라고 적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진표형이 와서 버스터미널에 갔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유로 화장실이었다. 그래서 3바트를 내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녁밥을 KFC에서 135바트 짜리 세트로 통일해서 먹었다. 버거, 닭다리, 감자튀김, 음료수가 나왔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잤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가서 서성거리다가 들어왔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다. 그래서 짐을 싸니 8시 46분이다. 이제 11시30분까지 할 게 없다. 심심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앉아 있었다. 앉아 있다가 돌아다녔다. 계속 돌아 다니다가 8번 방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잤다. 그런데 진표형이 11시40분에 깨워줬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고 아야 서비스에 가서 짐을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점심

을 먹은 음식점의 화장실은 물이 안 나왔다. 그래서 밖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나는 먼 요리인 꼬띠아오와 수박셰이크를 시켰다. 맛있었다. 그리고 피시방에 가서 그 동안 쓴 기행문을 타이핑하였다.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타이핑을 다 하고 메일로만 보내고 나왔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지호형이 말한 엄청 잘해주는 아저씨가 마사지를 해줬다. 엄청 시원하였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바나나 팬케익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6시까지 밴을 타러 가야 하는데 음식이 늦게 나와서 6시에 나왔다. 그래서 밴을 6시 10분에 탔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밴을 타고 치앙콩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더 리버 하우스에 체크인하고 호흡기도를 하고 바로 잤다.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성회수요일인 3월 5일부터 부활절인 4월 2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죽으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좋아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했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2 사순절기 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새벽기도회 : 5-7시, 가족모임별로 참여. 매주 화, 수, 목, 금, 3월 11일 화요일 전체 가족 모임 기도회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이후, 가족모임 단위로 한 주간씩 참여합니다. 이번 주에는 소식이가족이 참여합니다.

2) 사랑의 금식 : 3월 5일(수)-4월 19일(토). 예배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모두 대상이며, 게시판에 참고해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금식에는 모두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금식한 끼니만큼 화해의 헌금으로 매주일 헌금합니다. 화해의 헌금은 공동체회원의 경우, 전액 교우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 쓰이며, 공동체 회원 외의 교우들의 헌금은 전액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쓰입니다.

3) 성경통독반 : 3월 6일(목)-4월 15일(화), 매주 월, 화, 목, 금 저녁 8시-10시. 지금이라도 성경통독반 참여를 희망하는 교우는 게시판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이름을 작성한 교우들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밖에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우들은 자유로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4월 13일 종려주일 예배

5) 4월 17일 목요세족례 : 저녁 8시

6) 4월 18일 거룩한 금요일 예배 : 저녁 8시

7) 4월 20일 부활주일예배 : 김경재 목사 초청설교

3 주일 낮 2시에서 4시까지 특별연경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연경반은 총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오랫동안 연경반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과 교우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1월 중에 있었던 스토리 집회의 강의가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 되었으니, 반복하여 듣고 익혀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로 바꾸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예가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에 교우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산돌퀴즈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산돌퀴즈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어린이부터 예가교회의 교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돌퀴즈의 시상은 정답자를 중심으로 매주 주일 추첨하여 시상합니다. 또한,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라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7. 새로운 주일식탁가족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각 식탁가족에서는 식탁장과 식탁가족 이름을 오늘 중으로 협의하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다음 주 예배위원은 신나, 해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청년 가족이 대접합니다. 3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민수기 8장 ~ 민수기 14장
화	민수기 15장 ~ 민수기 20장
수	민수기 21장 ~ 민수기 25장
목	민수기 26장 ~ 민수기 32장
금	민수기 33장 ~ 신명기 2장
토	신명기 3장 ~ 신명기 7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